

2023년 1월에 드리는 아마존 떼페 선교편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73:23)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주님께서 아마존 떼페 선교지에 부어 주신 은혜가 참 큼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더 은혜를 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선교지 교회는 가장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존은 건기를 지나 이제 완전한 우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많은 비가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이변으로 인해 아마존도 기후가 변하는 여러 징조들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했습니다. 5명의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선교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선교 초창기 때에는 단기 선교팀을 많이 의지하며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지 교회 스스로 모든 사역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단기팀들을 통해 배우는 시절은 지나고 단기팀들에게 도리어 선교지 사역을 통해 도전을 주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된 밀림의 인디오 형제들에게 교회가 식량을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에게 샌들과 티를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청년들을 데리고 밀림으로 지교회에 있는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 성경학교와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힘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심히 섬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우기가 시작되며 많은 독한 벌레들이 강가와 밀림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청년들이 모두 많이 물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올 해 1월 15일 셋째 주일이 아마존 떼페 선교지 생명수 장로교회 13주년 창립 주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장식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교회가 사역을 감당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이웃을 돕고 밀림으로 인디오 지교회에 들어가 집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답게 좀 더 선교지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선교지에서의 아마존 마지하 쿨리나 부족 언어인 아라와 어로의 신약성경 번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고린도 후서까지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 작업이 마치는 데로 마지하 쿨리나 부족 언어로 신약 성경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발간해 줄 수 있는 후원 교회나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녀인 하람이는 신대원 공부를 하며 상파울로 한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저희가 안식년을 맞아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경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양쪽 어금니를 모두 뽑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 안식년을 맞아 고국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야 할 처지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모든 동역자님들과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아마존에서

김영균, 김윤정 선교사 올림

아마존 떼페 선교지를 위한 기도제목

1. 아마존 주루아 강 줄기의 꾸마루 지역 인디오 마을의 마지하 쿨리나 부족들이 사는 척박하고 소외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2. 떼페 생명수 장로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하여 아마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아마존 떼페 선교지에 계속 영적인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4. 선교사 가정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5. 마지하 쿨리나 부족 인디오 언어로 신약성경 번역 작업이 잘 진행되기를



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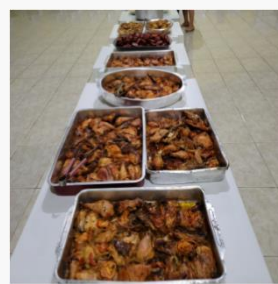
성찬식



인디오 사역을 위한 바자회



식량 나눔 행사



성탄절 행사

전교인 식사



교회 창립 13주년 예배 행사

인디오 마을 지교회 집회